

2025 년 3 월 14 일

HSBC, 하이테크 수출 덕에 한국 경제 성장 하방 위험 일정 부분 상쇄 전망

HSBC는 한국 경제가 하이테크 제품을 전 세계에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입지를 갖춘 덕분에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성장 하방 위험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. 또한 여러 환율 상승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.

이 같은 경제, 환율 전망은 HSBC코리아에서 3월 13일 오후에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‘2025 글로벌 경제·외환 전망 세미나’에서 제시되었다.

프레데릭 뉴만 아시아 최고 이코노미스트 겸 HSBC 아태지역 글로벌 리서치 공동 총괄은 “한국 경제는 AI 열풍에 필요한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을 전 세계에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독특한 입지 덕분에, 갈수록 심해지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성장 하방 위험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”라고 전망하며 “한국 은행의 금리 인하 또한 가계 소비와 투자 회복을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”고 말했다.

조이 초 HSBC 아시아 외환 리서치 총괄은 “원·달러 환율은 작년 12월 말 최고 수준에서 일정 부분 회복되었다. 그러나 아시아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,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,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, 내국인의 해외 주식·채권 투자,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등 여러 원화 가치 하락 요인 또한 상존한다”고 전망하며 “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올 하반기에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(WGBI)에 편입됨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것이다”고 말했다.

피터 김 HSBC코리아 대표 겸 बैं킹 총괄은 이날 개회사에서 “고조되는 글로벌 정치·경제 갈등 때문에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. 안보 체계 변화, 글로벌 공급망 재편, 무역 갈등 등 여러 중대한 대외적 상황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흐름을 제대로 전망하고 기회를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”고 언급했다.

보도자료 문의

서채원 본부장 010 9038 2437 chaewon.suh@kr.hsbc.com

This news release issued by
HSBC Korea